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실크로드의 약탈자들과 오타니 컬렉션

제9강
11월 15일(화)
오후 7시-9시

강사: **아라키 준 (荒木 潤)** 교수
일본 교토대학교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 근무했다. 2018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주 근대사를 비롯하여 실크로드 연구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 삼릉계 약사여래좌상 반출 경위에 대한 고찰」, 「일제강점기 경주의 유물 반출·훼손과 조선인의 대응: 신라옥적과 일승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실크로드 고대 오아시스 국가의 영화와 동서교류의 발달상을 실감케 해주는 오타니 컬렉션. 일본을 대표하는 불교 교단 정토진종 서본원사파 교주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1948)는 20세기 초 중앙아시아에 세 차례에 걸쳐 탐험대를 파견하여 수많은 불교 유물을 수집했다. 그 중 불교 벽화를 중심으로 한 일부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보관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오타니 컬렉션이라 부른다. 국내 유물 중심으로 구성된 국립중앙박물관 내에서 이 콜렉션은 이국적 빛을 발하면서 한국 문화재를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적 '약탈'로 인해 반출된 것으로 달갑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타니 컬렉션을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 이번 강의에서는 오타니 탐험대의 파견 경위, 사상, 실태 등을 영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제국 열강의 중앙아시아 탐험 사례와 비교하면서 오타니 컬렉션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